

김정은 시대의 군중노선

문 장 순*

•요 약•

이 글은 김정은 시대 군중노선에 대한 성격을 분석하고자 했다. 군중노선은 북한체제 성립 이후 조선노동당의 기본노선 가운데 하나이다. 군중노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북한체제의 성격 변화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군중노선은 군중이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주인이라는 입장에서 그들이 역할 할 수 있도록 당이 도우면서 성과를 내도록 추동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조선노동당은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나 경제위기가 있을 때 군중노선을 강조했다.

군중노선의 원형은 김일성 시대의 천리마운동에서 나타났다. 김정일 시대의 대표적인 대중운동인 제2천리마운동을 거쳐 김정은 시대에 만리마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중운동 속에서 나타난 군중노선의 원칙은 60년 동안 지속성을 보이고 있다. 외형상은 변화를 보이지만 사업달성을 위한 속도전, 집단경쟁유도 등은 대중운동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조선노동당의 군중노선의 지속성은 북한체제의 속성이 쉽게 변할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주제어 : 군중노선, 천리마운동, 청산리방법, 만리마속도창조운동, 사회주의강성국가

I. 서론

사회주의체제는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을 목표를 내세우고 그를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운용했다. 군중노선도 그러한 수단 가운데 하나다. 군중노선은 사회주의국가에서 혁명과 건설과업을 당이 대중을 앞세워 수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체제나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할 경우 이러한 방식을 동원하곤 했다.

일반적으로 군중노선은 대중운동을 통해서 나타났다. 소련의 경우 스타하노프(A. G. Stakhanov)운동이 대중운동의 출발점이다. 스타하노프라는 광부가 채탄기술을 개발해 획

* 중원대학교 교수

기적인 생산량을 증대시켰고, 이후 전국적인 대중운동으로 확산되었다.¹⁾ 이 운동은 1930년대 말에 중단되었지만, 소련은 전후 경제복구를 수행하면서도 대중운동 방식을 채택했다. 당시 군중노선이라는 표현은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 사회주의 경제건설 등에 대중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군중노선의 성격을 엿볼 수는 있지만 정형화된 모습은 아니었다.

이러한 군중노선은 중국 모택동 시절에 보다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모택동은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은 대중과 유리될 경우 성공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대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모택동은 혁명과정에서 대부분의 사업은 대중운동을 통해서 진행했다. 대중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중 속에 들어가서 대중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모택동의 신념이었다. 그래서 대중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어를 제작하거나 전단, 벽보, 시위, 대중 집회와 같은 다양한 형식을 통해 대중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했다.²⁾ 모택동은 이러한 대중동원을 체계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당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당이 대중 속에 들어가 대중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바로 군중노선이다. 모택동에 의해서 주창된 이러한 군중노선은 연안시대(1936~1947)에 당의 대중지도 방식으로 정착되어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³⁾

북한은 이러한 사회주의국가의 군중노선에 영향을 받았다. 각종 대중운동에서 군중노선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었다. 북한은 체제 성립 후부터 대중운동을 전개했다. 대중운동의 전개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등장하고 있는데, 대체로 정치·경제적 위기시 나타났다. 정치적으로는 내부적 결집을 위한 수단으로, 경제적으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대중운동은 천리마운동, 청산리방법, 천리마작업반 운동, 대안의 사업체계, 제2천리마운동, 만리마운동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사회주의 건설이전부터 북한은 대중운동에 대한 강조가 있었다. 김일성은 항일투쟁시기에 대중을 투쟁의 중심으로 내세우고자 했다.⁴⁾ 당시의 대중동원에서 대중을 자발적이

1) 조준배, “생산과 복지의 갈림길에서: 스탈하노프 운동과 소련 노동조합, 1935-36”, 한국서양사학회, 『서양사론』 제100호, 2009, pp.218-219.

2) 김기효, “知識人에 對한 毛澤東의 認識研究”,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pp.179-180.

3) 군중노선은 일차적으로 당과 대중의 통일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으며 이로써 당은 대중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다. 당이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는 공작방법 및 개념은 연안시대에 와서 구체적인 형태로 공식화되지만, 이미 강서시대부터 모택동은 대중의 중요성과 혁명적 역량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면서 대중 활동방법과 관련하여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주봉호, “북한의 군중노선”, 동의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統一論叢』 9권 1호, 1996, p.126.

4) “혁명투쟁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이 조직동원되어야 혁명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지도자들은 응당 인민대중 속에 들어가 그들을 각성시킴으로써 대중자신이 주인이 되어 혁명투쟁을 전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일성, “조선혁명의 진로: 카륜에서 진행된 공청밋반제청년동맹

고 창의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당의 영도를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군중노선으로 규정하기는 힘든 부문이 있다. 하지만 혁명사업에서 운동지도자들이 대중의 주체적 역량의 발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중노선의 형태는 엿 볼 수 있다.

북한 군중노선의 구체적 구현은 천리마운동에서 나타났다. 1957년부터 시작된 인민경제5개년계획(1957~1961)에서 시작된 천리마운동은 당의 지도와 인민대중의 열의가 결합되어 북한 사회주의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천리마운동은 천리마작업반운동으로 이어졌고 김일성은 이러한 운동을 군중노선의 승리로 자평하면서⁵⁾ 이후 북한 군중노선의 원형으로 자리매김하시 시작했다.

이러한 군중노선은 김정은 시대에도 강조하고 있다. 근로단체를 중심으로 대중운동을 강조하면서 당이 군중 속으로 들어가 군중의 역할을 높이도록 독려하고 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⁶⁾, 선군청년빨불상쟁취운동, 청년돌격대운동⁷⁾, 사회주의경쟁운동과 대중적 기술혁신운동, 26호 모범기 대창조운동과 좋은 일하기운동⁸⁾, 녀맹돌격대활동⁹⁾ 등의 대중운동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대중운동 속에 군중노선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대중을 동원한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은 체제성립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북한은 대중운동의 사회라고 할 정도로 끊임없이 각종 동원운동을 지속시켜왔다. 대중운동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대중이 주인이 되어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군중노선이 채택해야하는 것이다. 북한 대중운동에서 군중노선을 파악하는 것은 북한체제의 성격을 이해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래서 북한의 군중노선이 왜 시작되었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가를 파악하는 것은 북한체제를 이해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군중노선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군중노선의 성격과 사업방식을

지도간부회의에서 한 보고(1930.6.30)”, 『김일성저작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p.4-5.

- 5) “천리마작업반운동의 발전은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증명하는 것이며 당과 인민의 확고부동한 통일을 시위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대중을 믿으며 대중에 의거하여 사업하며 대중의 열성과 창발성을 동원하여 모든 난관을 뚫고 나아가는 우리 당의 인민적사업방법과 군중노선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김일성, “천리마기수들은 우리 시대의 영웅이며 붉은 전사이다: 전국국천리마작업운동선수대회에서 한 연설(1960.8.22)”, 『김일성저작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p.259-260.
- 6) 김정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자: 제4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수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조선중앙통신』, 2015년 11월 20일.
- 7) 김정은,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서 하신 연설(2016.8.28)”, 『로동신문』, 2016년 8월 29일.
- 8) 김정은,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시대적임무와 직맹조직들의 과업: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2016.10.25)”, 『로동신문』, 2016년 10월 27일.
- 9) 김정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 따라 녀성동맹사업을 더욱 강화하자: 조선민주녀성동맹 제6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2016.11.17)”, 『로동신문』, 2016년 1월 19일.

분석해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규명하거나 특정분야에서 속에서 나타나는 군중노선의 성격을 파악하고자¹⁰⁾ 하거나 북한 대중운동을 분석하면서 그 속에 나타나는 군중노선을 부분적으로 언급하는¹¹⁾ 연구가 있는 정도이다. 김정은 시대의 군중노선에 대한 연구는 북한 체제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의미 있는 작업이다. 이 글은 김정은 시대의 군중노선이 천리마운동시기에 비해 어떻게 변용되었는가를 비교분석하여 북한체제의 성격을 파악하고 나아가 김정은 시대의 특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천리마운동과 김정은 시대 대중운동인 만리마운동의 등장배경과 근로단체와 생산조직에 대한 사업방법, 결과 등을 분석하여 차이점과 공통점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는 이를 바탕으로 김정은 시대의 북한체제의 성격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북한의 군중노선의 성격과 전개

1. 군중노선의 성격

김일성은 군중노선을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적극 옹호하며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대중의 힘을 믿고 대중을 발동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것”¹²⁾으로 정의하고 있다. 당이 대중을 교양하고 그들을 동원하여 혁명을 수행하는 방식이 군중노선이다. 이러한 군중노선은 해방 직후 토지개혁과정에서 당의 군중노선을 정확하게 집행해서 성과를 거두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 북한체제 성립과 동시에 등장했다¹³⁾. 군중노선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잡히기 시작한 것은 청산리운동을 거치면서이다. 김정은 시대에서도 전통적인 군중노선을 구현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자는 운동이 지속되고 있다.¹⁴⁾ 체제성립 이후 일관된 당의 대중지도노

10) 주봉호, ‘앞의 논문’; 김근식, “북한의 ‘혁명적 군중노선’연구”(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정혜주, “고난의 행군’시기 영화예술에 나타난 군중노선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11) 차승주, “김정은 시대 북한교육부문에서 대중운동”, 서울대 평화연구원, 『통일과평화』 8집 1호(2016); 장인숙, “1970년대 북한의 추격발전체제와 대중운동노선 재정립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2) 김일성, “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창건 30돐기념대회에서 한 보고(1975.10.9)”, 『김일성저작집』 3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p.531.

13) 항일투쟁시기에 군중노선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 ‘혁명적 군중노선’이 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군중 속에서 당의 역할을 부여하기 시작한 것은 토지개혁 후 결과보고에 대한 김일성의 보고에서 등장한다. 김일성, “토지개혁의 종결과 금후과업: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6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한 보고(1946.4.10)”, 『김일성저작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149.

14) 김정은,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한 연설

선이다.

이러한 군중노선은 여타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초기 산업화과정에서의 대중동원방식과 어느 정도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모택동의 군중노선이 대중 속에 들어가 대중에게서 배운다는 논리로서 군중노선을 강조하는데 비해 북한은 군중노선에서 당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대중운동에 당적 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당적 지도는 “당정책을 당원들과 군중에게 해설침투하여 그들이 당정책을 깊이 파악하고 당이 요구하는대로 일하게 함으로써 당정책이 정확히 관철되도록 하는 것”¹⁵⁾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당적 지도가 이루어질 경우 군중노선이 관철될 수 있다. 대중운동은 대중 스스로 해야 하지만 혁명과 건설을 위해서는 당의 역할이 불가피하다. 당이 대중을 지도하고 그들을 위해 복무하기 위해서는 군중노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당은 군중노선을 위해 어떠한 입장에서 지도해야할까? 첫째,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이 주인이라는 입장에서 출발한다. 인민대중의 이익을 위해서 당은 그에 부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은 인민대중의 지혜를 소중히 여겨야한다 것으로 이어진다. 김일성은 1965년 강선제강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도일군들이 전문가, 생산자대중과 협의해서 문제를 풀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당시 관료주의가 스며들면서 청산리정신이 발휘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 김일성은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인민대중의 지혜를 모으지 못하면 사업의 성과를 낼 수 없다고 이야기 한다.

“... 문제는 일군들이 군중노선에 의한 사업방법을 계속 견지하는가 못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성에서 관료주의를 부리지 않고 형식주의적으로 일하지 않으며 건달식으로 지도하지 않고 늘 군중속에 들어가 군중과 의논하여 군중의 의견을 듣고 군중의 지혜를 발동시킨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거두리라는 것은 의심할바 없습니다.”¹⁶⁾

군중을 믿고 군중 속에 들어가서 군중들이 혁명과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김일성의 논리는 군중노선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둘째, 인민에 대한 교양교육이다. 교양교육이 없이는 혁명사업이 성과를 낼 수 없다. 군중노선을 주장하면서 그와 함께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대중의 교양사업이다. 교

(2014.2.25)”, 『로동신문』, 2014년 2월 26일.

15) 김일성, “제1차5개년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함경북도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함경북도 당 및 정권기관, 사회단체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1957.5.11).” 『김일성저작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157.

16) 김일성, “7개년계획의 강철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강선제강소당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한 연설(1965.1.30)”, 『김일성저작집』 1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138.

양사업은 바로 정치사상사업이다. 혁명사업에서 교양사업은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는 당의 정책과 사상이다.

“군중노선을 구현하려면 한편으로는 당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하며 다른편으로는 군중의 정치사상의식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 당은 모든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군중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우리는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되게 하고 근로자들속에서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을 당정책교양 및 혁명전통교양과 결부하여 힘있게 진행하였습니다.”¹⁷⁾

이런 사업을 통해 군중의 혁명을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군중을 당의 조직에 연계지우고자 했다. 군중의 정치적 통일과 단결을 의도한 것이다. 친일분자 등 소수를 제외하고는 당의 울타리 속으로 결집할 수 있다고 김일성은 생각했다. 이를 위해 군중노선을 계급노선과 연계시키는 전략을 구사했다. 이 전략을 통해 군중노선은 사회구성원들의 동질성을 형성해가는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나아가고자 했다.¹⁸⁾ 이로 인해 1960년대 이후 사회구성원들은 사적 공간에서 벗어나 공적 공간으로 나아가면서 국가의 가족통제가 확대되는 현상을 낳기도 했다.¹⁹⁾

셋째, 혁명과업의 수행이다. 당은 군중들을 추동해 당면한 혁명과업을 수행해야한다. 당은 대중을 중심으로 혁명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군중노선은 혁명과업을 수행할 때 보다 성격이 분명해진다. 초기의 혁명과업은 반제국주의에 머물렀지만 관료주의와 형식주의 타파에서, 시기가 지나면서 군중노선이 지향한 혁명사업은 경제건설사업으로 옮겨갔다.

“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며 대중속에 들어가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묶어세우며 대중에게서 힘과 지혜를 얻으며 광범한 대중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군중노선입니다. 사회주의건설이 빨리 전진하는 것은 당의 군중노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²⁰⁾

17) 김일성, “조선로동당창건 스무돛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창건 스무돛경축대회에서 한 보고(1965.10.10), 『김일성저작집』 1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p.506-507.

18) “우리는 당의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의 혁명대오를 더욱 확대강화하여야 하며 전사회를 굳게 단합되고 화목하고 명량하고 생기발랄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켜야 하겠습니다.”, 김일성,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한 보고(1966.10.5.)”, 『김일성저작집』 2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438.

19) 문장순, “북한 사회주의 대가정의 변용과 정치적 함의”,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제25집 3호, 2017, p.55.

군중노선의 역할 중 하나가 당의 혁명과업 수행이다. 이를 위해 당은 대중의 정치사상 의식을 높이고 대중동원을 수행했다. 군중노선은 인민대중이 사회주의 건설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자각시키며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방식을 실행했다. 군중노선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청산리운동에서 이러한 현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후 등장한 당의 모든 혁명과업에서 군중노선은 기본원칙이었다.

결국 군중노선은 당면한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당이 대중을 앞세워 수행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논리적인 측면에서는 인민대중에 의한 인민 대중을 위한 당의 노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군중노선은 어떻게 구현되느냐가 중요하다. 그것은 북한 체제의 성격을 가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군중노선의 전개

이미 언급한 것처럼 북한 군중노선의 원형은 천리마운동에서 보였다. 천리마운동은 한국전쟁 이후 피폐화된 북한 경제의 재건이 완료되고 본격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5개년 인민경제발전계획(1957~1961)이 수립된 상황에서 등장했다. 이 계획은 사회주의공업화의 토대를 마련하여 자립적 민족경제를 구축하자는 논리로 이어졌다. 적어도 당시의 혁명과업은 민족적 자립경제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었다.²⁰⁾ 천리마운동은 대외의존을 줄이고 내부적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당의 혁명과업을 수행해야 했다. 천리마운동의 출발 환경은 제약이 많았다. 내부적으로는 경공업 우선발전을 주장하는 소련파·연안파와 중공업 집중을 주장하는 김일성파와의 갈등이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중·소간의 갈등과 북·소관계의 악화가 5개년경제계획이 진전되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여건에서도 천리마운동은 일정한 성과를 가져왔다. 처음부터 인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관료주의와 형식주의가 적지 않게 생산현장에 남아있어 운동의 성과를 장담하기 힘들었다. 김일성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주의교양교육을 강조하면서 노동자들을 생산향상을 독려했다.

김일성은 현장지도를 통해 당의 과업임을 내세우면서 현재위기 상황을 극복하자고 호소했다. 예컨대 1957년 김책제철소는 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들과 노동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23만 톤의 생산목표를 27만 톤까지 가능하게 했고 강선제강소의 분괴압연직장은

20) 김일성, “조선로동당창건 스무돛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창건 스무돛경축대회에서 한 보고(1965.10.10)”, p.506.

21) 김일성, “사회주의건설에서 청년들의 과업에 대하여: 전국청년사회주의건설자대회에서 한 연설(1958.3.19)”, 『김일성저작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190.

강제생산능력이 6만 톤이지만, 12만 톤을 생산했다. 당의 과업이 생산현장에서 수행되고 있음을 자강도의 당 조직을 비롯한 각종 단체 일군들이 모인 곳에서 주장했었다.²²⁾

강선제강소는 생산증대에 한 걸음 더 나아가 1959년 3월 8일 강선제강소 진흥원작업반원들이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펼친다. 천리마운동의 하나의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 이 작업반 운동이다. 전국적으로 천리마작업반 만들기 시작되었다. 시작한지 1년이 갓 넘어서 전국에서 8,600여개의 작업반이 참여했고 766개 작업반이 칭호를 받을 정도로 빠르게 진전되었다. 전체성원들이 공동으로 생각하고 노력하며 집체적 창발성을 발휘하여 생산과 기술의 발전에서 집단적 혁신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할²³⁾ 정도로 노동현장에서 작업방식과 사고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다. 작업반운동은 천리마운동의 한 단계 심화된 것으로써 “집단적 혁신의 결정적 고리”를 개별적이든, 집단적이든 물질적·정치적 보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상 의식을 개조하여 그의 자각적 열성을 발휘케 하며 공산주의 의식을 높이는 데서” 찾는 운동이었다.²⁴⁾

그러나 한편에서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은 북한체제에 새로운 성격을 형성시키는데 주요한 기여도 했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노력동원, 생산력발전을 목표로 한 것이기도 했지만, 주로 작업반이라는 단위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통한 공산주의적 새 인간을 만들기 위한 대중운동이었다. 따라서 천리마작업반은 인간개조의 장, 교육교양의 장이기도 했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집단주의적 성격은 단적으로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로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주체 확립과 혁명적 군중노선을 위한 수단으로서 집단적인 교육교양이 절대적으로 중시되었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인간개조를 사회주의 건설의 관건으로 삼은 것이야말로 북한적 현상의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라고 할 수도 있다.²⁵⁾ 이런 점에서 천리마운동은 오늘날과 같은 북한체제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운동의 사업방식이 좀 더 구체화되어 진전된 것은 당이 대중을 중심으로 대중 속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교양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청산리방법이다. 1960년 2월 김일성이 평안남도 강서군 청산리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면서 등장했다. 이때 김일성은 군

22) 김일성, “자강도 당단체들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 자강도 당, 정권기관, 경제기관 및 사회단체 일군들앞에서 한 연설(1958.8.5), 『김일성저작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p.379-380.

23) 김일성, “천리마기수들은 우리 시대의 영웅이며 당의 붉은 전사이다: 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대회에서 한 연설(1960.8.22), 『김일성저작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256.

24) 김진환, “천리마운동: 건설의 신화와 재현의 정치”,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제20권 제2호, 2016, p.40.

25) 김경욱, “천리마시대(1956~1972)의 북한 교육교양에 대한 연구: 북조선인의 탄생”,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원북한연구소, 『현대북한연구』 21권 1호, 2018, p.17.

중을 믿고 군중에 의지하면서 그들을 지혜와 창조력을 끌어내어 당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그것이 군중노선으로 명명되었다. 이 노선은 이후 북한의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에서 하나의 원칙으로 자리 잡아 나갔다. 군중노선은 천리마운동에서 그 모습을 보였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현실에 적응시키기 시작한 것을 청산리방법 혹은 청산리정신이라 부른다.

이러한 청산리방법은 농업분야에서 시작해서 점차 공업분야로도 확산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대안사업체계다.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분야에서 군중노선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는 대안사업체계는 1961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김일성의 연설에서 비롯된다. 공장운영에 지배인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유일관리체제에서 공장당위원회를 최고지도기관으로 하는 집체적 지도체계 확립, 경제지도기관과 공장 모두가 계획사업, 기술준비사업, 생산지도 관련 사업을 통일적으로 틀어지고 지도하는 체계 정립, 상급조직이 하급조직의 자재를 책임지고 보내주며 공장은 작업현장에 직접 자재를 내려다주는 작업체계 확보, 노동자들이 사회주의 건설에 재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등을 공장 내에 관리 운영하는 후방공급사업, 집체적 영도 기관으로서 공장당위원회의 기구 확대를 통한 역할 제고, 상급기관의 계획이 하급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체계 등을 요구했다.²⁶⁾ 한마디로 이러한 내용은 그대로 군중노선을 관철하는 대안사업체계의 사업방식으로 요구되어졌다.

이렇게 전분야로 천리마운동의 구체적인 전략인 청산리방법이 확산되면서 북한은 혁명과 건설사업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실제 천리마운동과 함께 진행된 1차 5개년계획에서 달성목표는 국민총생산 약 2.2배, 공업총생산은 2.6배, 양곡수확고 376만 톤이었는데, 실적은 국민소득은 2.2배, 공업총생산은 3.5배, 양곡수확은 380.3 톤이었다. 그것도 계획목표를 1년 조기 달성할 정도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이르면 천리마운동의 경제적 성과가 한계에 이른다. 1961년부터 시작한 제1차 7개년 계획(1961~1967)이 전반적으로 계획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1966년 10월 노동당 대표자대회에서 계획기간을 3년간 연장하기까지 했지만, 국민소득성장률 등 주요 실적지표는 발표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발전에 차질을 가져 왔다.²⁷⁾ 천리마운동의 성과가 경제발전에 한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응해서 1973년에 이르면 3대혁명소조운동이 전개된다. 사상, 기술, 문화부문에

26) 김일성,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내올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한 연설(1961.12.15), 『김일성저작집』 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p.487-519.

27) 문장순, 『통일시대의 북한론』, 대구: 광진문화사, 2001, p.187.

혁명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된 3대혁명소조운동은 모든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장기적인 경제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고 또한 천리마운동이 진행되면서 누적된 보수주의, 경험주의, 관료주의를 배척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을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도 깔려있다. 그렇게 해서 3대혁명소조운동은 출발했다. 그렇다고 기존의 군중노선과 단절된 것은 아니다.

“우리 당이 발기한 3대혁명소조운동은 혁명적군중노선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며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당,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과 근로단체일군들, 과학기술일군들과 청년인테리들을 망라한 큰 규모의 3대혁명소조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파견함으로써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우가 아래를 더 잘 도와줄 수 있게 하였습니다.”²⁸⁾

이처럼 3대혁명소조운동은 전통적인 군중노선의 연장선상에 있고 그것은 시대적 상황에 적응하기 변형된 운동방식이라 할 수 있겠다. 3대혁명소조운동에서는 대중운동에 당적 지도가 당 중앙위원회로 집중된다. 김정일은 1973년 김일성에 의해 시작될 당시 공업 부문과 농업부문이 각기 분리되어 있던 3대혁명소조의 지도체계를 당 중앙위원회로 집중시켜 통일적 지도체계를 구축한다. 당의 직접적인 지도가 3대혁명소조를 통해 생산현장의 각 단위의 공장 및 기업소에까지 관철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²⁹⁾ 이러한 여건 속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발기되고 이 운동을 통해서 북한은 일정한 성과가 있었음을 자평하고 있다. 6개년 계획기간(1971~1976)동안 가장 어려운 고지의 하나였던 강철생산을 400만톤의 강철생산능력을 조성했고 시멘트생산능력은 800만 톤 이상에 이르고 전력공업, 화학공업, 기계공업 부문의 생산토대도 더욱 강화되었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6개년계획의 생산과제를 훨씬 넘쳐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³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1992년 북한 헌법에 명기할 정도로 대중운동으로써의 지위를 분명하게 했다. 그러나 북한의 1990년대는 체제의 위기가 그대로 노정되는 시기였다. 당의 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1998년 김정일의 공식 출범하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내세우면서 성진제강을 현지도한 것을 시작으로 제2천리마대진군운동을 전개시켰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1992년 헌법에 등장 한 이

28) 김일성,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공업열성자회의에서 한 연설(1975.3.3), 『김일성저작집』 3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p.259.

29) 장인숙, ‘앞의 논문’, p.141.

30) 김일성, “신년사(1977.1.1)”, 『김일성저작집』 3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p.2.

후 자취를 감추었던 천리마가 등장한 것이다.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이 당의 당면과업으로 설정되었고 그것을 수행할 대중운동이 천리마대진군이다.

그런데 김정일 시대에 등장한 천리마대진군은 단어만 바뀌어졌지, 그 추진방식은 천리마운동시기와 비슷하게 진행되었다. 천리마운동의 재현인 것이다. 전통적인 수령의 영도 방식이 특정지역 현장지도를 통해 전 지역으로 확산하는 방식이 그대로 나타났다. 강계 정신, 성강의 봉화, 락원의 봉화, 라남의 봉화 등이 그것이다.

대중운동이 외형상 모습만 바꾼 상황 속에서도 당의 군중노선의 원칙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단지 과거에 비해 수령의 영도만 있지 당이 인민과 함께하는 하는 군중노선의 강조는 찾기 힘들다. 김일성 체제가 견고해지는 1960년대 이후 군중노선은 당 사업에서 군중을 앞세우기 보다는 당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고 정치사상사업을 통해 군중의 의식을 획일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시키는데 기여했다. 이때부터 군중노선은 주체사상과 연결되어졌다. 결국 인민 중심의 혁명과업 수행보다는 당과 수령의 영도에 의해 인민대중의 혁명적 역량을 동원하는 북한식 군중노선을 노정시키고 있다.³¹⁾

III. 김정은 시대 군중노선의 변용

1. 군중노선의 환경

김정은은 군중노선에서도 앞 시대와 다른 모습을 보여야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특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김일성 시대에는 천리마운동을 통해 군중노선에 대한 원형을 보여주면서 각종 대중운동을 통해 그것을 구현하고자 노력했다. 김정일 시대는 김일성시대의 군중노선의 연장선상에서 제2천리마대진군운동,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펼쳐졌다. 그러나 당의 영도 보다는 수령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나아가면서 인민대중의 참여를 끌어내는 데는 과거에 비해 미흡했다. 대중운동의 결과를 드러낼 만한 내용도 부족했다.

이러 여건 속에서 김정은이 군중노선을 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을 형성해야 했다. 당장에 김정은은 선대의 유훈관철이 중요했다. 김정일이 1998년에 제기된 강성대국론은 중점목표를 경제강국에 두고 이를 2012년에 달성하겠다는 선언을 2009년 공동사설을 통해 제시했다. 강성대국 달성은 당과 인민의 확고한 의지이며 천리마 대고조를 일으키던 그 정신 그 투쟁으로 투지를 강조했다.³²⁾ 김정일이 이러한 국가방향을 제시 한 후 2년

31) 주봉호, '앞의 논문', p.141.

만에 사망했다. 김정은 이미 김정일에게서 물려받은 강성대국건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중요했다. 강성대국건설은 국가의 당면과제이고 이것은 천리마 대고조운동과 같은 대중동원으로 달성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노선을 제시할 것인지가 문제였다.

그러나 김정은도 2012년 새해 공동사설에서 강성대국건설을 강성국가로 표현을 하면서 김정일의 유훈 관철을 천명했다. 이후 강성국가건설이란 표현은 2014년~2016년 김정은의 신년사에도 등장했다. 2016년 제7차 당 대회는 김정은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전환점이었다. 당 대회를 통해서 자신의 노선을 드러내고 자신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인적 개편을 통해 자신의 당으로 만들었지만, 노선에서는 김정일 시대에서 점차 벗어나려는 모습 정도만 보였을 뿐이다. 당 규약 개정에서 조선노동당의 사업방법은 사람과의 사업, 사상을 중심으로 한 인민대중의 정신력 발동,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 주체의 사업방법구현,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 등으로 정했다.³³⁾ 이러한 당 사업방식에서는 김일성 시대의 군중노선과 비슷하다.

7차 당 대회 총화보고에서 강성국가건설 대신에 사회주의 강국건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강성국가건설을 북한이 나아가야 할 기본투쟁과업으로 선정했다. 당의 과업이 강성국가 건설로 선언되었고, 당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현되었던 군중노선방식을 계속 강조했었다.³⁴⁾ 이러한 7차 당 대회의 내용을 보면 적어도 7차 당 대회를 통해 사회주의 국가의 전형인 당 중심 국가체제를 출범시켰다는 점에서 과거에 진행되었던 군중노선이 자리할 공간은 넓어진 셈이다.

일반적으로 군중노선은 체제나 경제위기에 등장했다.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5년간 북한 경제실적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며, 2000년대 내내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던 물가도 2013년 이후 안정세를 보였다.³⁵⁾ 그러나 2017년 성장률이 -3.5% 기록해 200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대외교역도 전년 대비 15%가 줄어드는 등³⁶⁾ 어려움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유엔에서 지금까지의 대북제재조치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석탄, 철강 등 북한의 주력 수출품에 대한 금지 내용이 담긴 대북

32) 김정일, “총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율해를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해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2009년 1월 1일.

33)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노동당규약 서문에 나타난 것을 정리한 것이다. 박영자, 『김정은 시대 조선노동당의 조직과 기능: 정권 안정화 전략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7, p.61.

34) “위대한 장군님사업방식은 인민들에게 들어가 대중의 마음을 움직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고 혁명과 건설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며 격식과 틀을 배격하고 모든 문제를 창조적으로 실속있게 풀어나가는 혁명적이며 인민적 사업방식입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로동신문』, 2016년 5월 8일.

35) 홍재환, 『김정은 정권 5년의 북한 경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7, p.141.

36) 한국은행, “2017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결과(보도자료)”, 2018년 7월 16일.

제재 결의안 2371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제7차 당 대회에서 결정한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2016~2020)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김정은은 정치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결국 김정은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발전5개년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중을 유인할 수 있는 대중운동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2. 만리마운동과 강원도 정신

김정은 시대의 대표적인 대중운동은 만리마운동으로 볼 수 있다. 이 만리마운동을 이끌어가는 것을 강원도 정신으로 명명하고 있다. 만리마운동이 김정은 시대에 대중운동으로서 성격을 드러내는 데는 경제발전5개년전략의 목표달성과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대표성을 지닌 대중운동을 바로 드러내지 않고 예비적 성격을 지닌 70일, 200일 전투라는 대중운동이 먼저 등장했다.

제7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은 경제발전5개년전략을 통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경제 전반의 활성화, 경제부문간 균형 있는 성장을 달성하여 국가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토대를 만들 계획임을 밝혔다. 이미 당 대회가 열리기 전 이를 위한 70일 전투가 시작되었다. 당 중앙위원회에서 전체당원들에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짜 혁명가”, “인민이 바라는 것, 인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만사를 제쳐놓고 하자고 나서는 당원”이 되어 줄 것을 사업 시작 전에 미리 편지를 보내 요구했다.³⁷⁾ 전 당원들에게 편지까지 보내면서 70일 전투를 시작한 것을 보면, 목표달성의 절박함이 묻어난다.

70일 전투기간 동안 대중동원을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했다. 예컨대 한국전쟁 때 평안도 군자리에 있는 지하 갱도에서 맨손으로 무기를 만들었다는 ‘군자리 혁명정신’을 강조하는데,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 등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을 극복해나가는 것이다. 또 여러 군데에 선전선동사업을 벌여놓은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대상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사상사업을 펼치는 방법인 ‘침입식정치사상사업’을 만리마시대의 대표적인 정신으로 만들자고 호소한다.³⁸⁾ 사실, 이러한 방식들은 대중운동이 진행될 때, 전통적인 군중노선에서 수행해온 전략적 방법이었다. 고난극복, 모범사례제시, 따라하기 등은 대중운동에서 항상 따라 다니는 군중노선의 방법이다.

37)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전체 당원들에게 편지를 보내었다”, 『로동신문』, 2016년 2월 24일.

38) “침입식정치사상사업으로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시대대표정신을 창조해나가자”, 『로동신문』, 2016년 4월 4일.

북한은 70일 전투는 성공적이라고 주장한다. 공업생산이 2015년에 비해 1.6배 성장, 전력공업부문에서 110%, 석탄은 전투 목표보다 10여만t 증산, 선철, 압연강재생산계획을 각각 129%, 111%, 철도운수부문의 중요화물수송계획을 124%, 경공업부문의 공업총생산액계획이 154%로 초과 완수되고 밝히고 있다.³⁹⁾ 7차 당 대회에서 만리마시대를 선언할 수 있었던 것도 70일 전투의 결과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만리마시대의 대중운동은 만리마속도창조운동으로 표출되었다. 북한 또 다른 속도전이라 할 수 있다. 만리마속도전을 200일 전투에서 먼저 시작했다. 7차 대회에서 제시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5월 29일 열린 당, 국가, 경제, 무력기관 연석회의에서 200일 전투가 선포되었다. 경제발전5개년전략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시작된 이 운동은 직장별, 작업반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증산을 위한 다양한 용어들이 구사되었다. 만리마기수, 시대의 영웅, 전형단위, 영도적 업적단위 등이 그것이다. 모범사례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상호경쟁을 자극하여 생산을 증가시키고 경제건설의 속도를 높이려는 방식이다. 또 전형단위들이 집단적 경쟁을 통한 속도전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의한 자력자강이다.⁴⁰⁾

이 과정에서 북한은 당의 역할은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풀고 과업이 방대하고 난관이 겹쌓일수록 인민에 의거하는 기풍⁴¹⁾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사업 역시 군중노선의 사업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북한은 2016년 12월 19일 보도문을 통해 200일 전투 역시 총생산목표의 119%를 달성했음을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음을 보도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은 만리마선구자대회 소집을 공식화했다. 2017년 1월 25일 당 중앙위원회가 올해 말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소집한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미 당 과업에 상당한 성과를 낸 강원도는 군중대회를 만리마선구자대회에 참여하자는 호소문을 발표했다.⁴²⁾ 만리마운동이 김정은 시대의 대표적인 대중운동으로 자리 잡기 위한

39) “로동당의 전투적호소마라 자력자강의 만리마기상을 만방에 떨친 위대한 승리”, 『조선중앙통신』, 2016년 5월 5일.

40) 만리마선구자대회는 작업반, 직장, 공장, 기업소 등 다양한 집단들로 하여금 과학기술에 기초한 혁신과 증산을 빠른 속도로 달성하도록 유도하려는 대회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김정은 시대의 속도전과 과거의 그것의 차이가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70년대 중반에 일반화한 것으로 알려진 기존 속도전은 기본적으로 선전선동을 강화해 대중들의 열의를 높이는 ‘사상전’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달리 현재 북한 정부는 “현 시대는 발전된 과학기술의 힘에 기초해 속도전을 벌여야 하며,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월하다”고 주장한다. 변학문, “만리마선구자대회, 과학기술과 속도전을 결합한 집단적 경쟁운동”, 『NK테크 브리핑』 NKTB A015호, 2017년 8월 23일.

41) “승리적 결속을 위한 총돌격전에서 당조직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 『로동신문』, 2016년 11월 7일.

42) “자력자강의 기세드높이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총매진, 총돌격하자!(호소문)”, 『로동신문』, 2017년 3

노력이 시작된 것이다. 강원도 군중대회를 빌어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소집한 것은 그동안 강조해온 강원도 정신과 무관하지 않다. 당의 과업 수행에서 모범이 될 사례를 적지 않게 남겼다. 김정은이 방문해서 ‘자력갱생의 창조물’로 평가한 원산군민발전소, 당이 제시한 생산현대화의 방침을 실현한 안변요업공장을 비롯해서 원산구두공장,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등도 모범사례다.

이렇게 해성 형성된 강원도정신의 주요요소들은 수령의 사상과 위업에 충직, 당 정책 관철의 결사정신, 과학기술을 앞세우는 진취적인 태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등이다.⁴³⁾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모두가 만리마운동에 동참하도록 북한은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자리매김한 강원도 정신은 모범사례로 부각시키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2016년 4차 핵실험, 장거리탄도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제제재가 진행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도 경제를 호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통적인 군중노선 방식을 취했던 것이다.

과거처럼 노동의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단기간에 결과를 도출하려 한 만리마선구자대회는 2017년에 열리지 못했다. 만리마선구자대회 개최를 선언 한 후 노동신문에는 만리마선구자대회 관련 사설, 기사 등이 거의 매일 실리 정도로 지면을 장식했으나 11월 이후는 관련 기사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 또 대회가 왜 열리지 않은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노동신문에는 대회를 위해서 사용되었던 사회주의강국건설, 자력갱생, 경제건설대진군, 혁명적인 총공세 등 노동력동원과 관련된 용어는 계속 등장하고 있으나 만리마와 관련된 언급은 없다. 2017년 10월 7일에 열린 당 제7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도 만리마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 미제와 추종세력들에 의해서 조성되는 어려움을 김정은은 토로하고 있다. 김정은의 연설에서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북한의 위협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김정은 시대의 상징적 대중운동으로서 만리마운동을 전개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 북한의 당면한 당 과업으로 설정한 경제발전5개년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대외적인 관계 개선도 필요하고 과거처럼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중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전략과 새로운 군중노선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월 7일.

43) “강원도정신으로 자력자강의 승전포성을 힘차게 울려나가자”, 『로동신문』, 2017년 1월 24일.

IV. 결론

북한은 여타의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사회주의건설과 혁명에서 군중노선을 채택했다. 군중노선은 인민대중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사업에서 창의성을 발의하고 성과를 높이 낼 수 있도록 수행하는 사업방식을 의미한다. 당과 인민이 함께 해서 혁명사업의 시너지효과를 내자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대중운동 속에서 구현되어왔다.

북한의 대표적인 대중운동인 천리마운동에서 군중노선의 원형이 발견된다. 군중노선이 천리마운동에서 파생된 천리마작업반운동, 청산리방법, 대안사업체계 등에서 구체화되면서 그 모습을 갖추었다. 천리마운동은 공업, 농업,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사상혁명, 문화혁명, 기술혁명을 일으키게 했고 생산력 발전에도 효과를 가져왔다. 오늘날과 같은 북한 체제의 성격도 천리마운동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천리마운동은 김정일 시대에도 재현되어 제2천리마운동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시대에도 대중운동이 진행되었고 군중노선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김정은 시대는 7차 당 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대중운동이 만리마운동이었다. 만리마운동을 견인하기 위한 만리마선수자대회를 계획하기도 했다. 이 운동의 방식이나 내용은 천리마운동과 비슷하다. 천리마운동이나 만리마운동 모두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대두되었고 생산향상을 위한 경쟁운동이었다. 생산현장에 천리마속도, 만리마속도를 창조할 것을 인민들에게 요구했다. 일종의 속도전이다. 속도전은 1970년대 이후 생산증산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등장한 방식으로 사상교육을 앞세워 대중의 생산열의를 고취시키면서 진행되었다. 김정은 시대에서 진행된 70일 전투, 200일 전투에서도 속도전은 중요했다. 만리마운동에서는 만리마처럼 더욱 빠른 속도를 요구하기 위해 내세운 것이 만리마속도창조였다. 그러나 방식에서는 대중의 사상보다 과학기술의 힘에 근거해야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 만리마운동은 철저하게 개인과 집단에게 경쟁의욕을 불러일으켜 생산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 개인에게는 만리마선수자, 단체에는 만리마선수자작업반 등의 칭호를 부여해서 증산, 경쟁을 유도했다. 이 역시 모범단체나 영웅을 창출해 생산을 독려하는 천리마운동에서 사용했던 방식이다.

이러한 대중운동에서 진행된 군중노선의 내용 또한 천리마시대의 원형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 군중노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현저하게 줄어들었지만 노동신문 등에는 ‘모든 것은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나 당이 군중 속에 들어가 능숙한 조직정치사업으로 대중을 당 정책관철으로 힘 있게 고무 추동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 되고 있다.

결국 북한의 대중운동 속에 나타나는 군중노선은 천리마운동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오고 있는 조선노동당의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부동의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당국가체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단지 외형상 시대변화에 따른 적응력을 보일지라도 당의 노선을 벗어난 국가운영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군중노선을 기초로 한 대중운동이 일시적인 생산증가를 가져 올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한계성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새로운 대중운동을 발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김정은 체제는 전통적인 북한체제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근식, “북한의 ‘혁명적 군중노선’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기효, “知識人에 對한 毛澤東의 認識研究”,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김경옥, “천리마시대(1956~1972)의 북한 교육교양에 대한 연구: 북조선인의 탄생”,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현대북한연구』 21권 1호, 2018.
- 김일성, “조선혁명의 진로: 카룬에서 진행된 공청및반제청년동맹 지도간부회의에서 한 보고(1930.6.30)”, 『김일성저작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김일성, “토지개혁의 종결과 금후과업: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6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한 보고(1946.4.10)”, 『김일성저작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김일성, “제1차5개년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함경북도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함경북도 당 및 정권기관, 사회단체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1957.5.11)”, 『김일성저작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김일성, “사회주의건설에서 청년들의 과업에 대하여: 전국청년사회주의건설자대회에서 한 연설(1958.3.19)”, 『김일성저작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김일성, “자강도 당단체들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 자강도 당, 정권기관, 경제기관 및 사회단체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1958.8.5)”, 『김일성저작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김일성, “천리마기수들은 우리 시대의 영웅이며 당의 붉은 전사이다: 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대회에서 한 연설(1960.8.22)”, 『김일성저작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김일성,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내올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한 연설(1961.12.15)”, 『김일성저작집』 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김일성, “7개년계획의 강철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강선제강소당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한 연설(1965.1.30)”, 『김일성저작집』 1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 김일성, “조선로동당창건 스무돛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창건 스무돛경축대회에서 한 보고(1965.10.10)”, 『김일성저작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 김일성,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한 보고(1966.10.5)”, 『김일성저작집』 20,

-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 김일성,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공업열성자회의에서 한 연설(1975.3.3)”, 『김일성저작집』 3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 김일성, “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창건 30돐기념대회에서 한 보고(1975.10.9)”, 『김일성저작집』 3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 김일성, “신년사(1977.1.1)”, 『김일성저작집』 3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 김정은,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한 연설 (2014.2.25)”, 『로동신문』, 2014년 2월 26일.
- 김정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자: 제4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2015.11.20)”. 『조선중앙통신』, 2015년 11월 20일.
-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로동신문』, 2016년 5월 8일.
- 김정은,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서 하신 연설(2016.8.28)”, 『로동신문』, 2016년 8월 29일.
- 김정은,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시대적임무와 직맹조직들의 과업: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2016.10.25)”, 『로동신문』, 2016년 10월 27일.
- 김정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따라 녀성동맹사업을 더욱 강화하자: 조선민주녀성동맹 제6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2016.11.17)”, 『로동신문』, 2016년 1월 19일.
- 김정일, “총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를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해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2009년 1월 1일.
- 김진환, “천리마운동: 건설의 신화와 재현의 정치”,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제20권 제2호, 2016.
- 문장순, 『통일시대의 북한론』, 대구: 광진문화사, 2001.
- 문장순, “북한 사회주의 대가정의 변용과 정치적 함의”,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제25집 3호, 2017.
- 박영자, 『김정은 시대 조선로동당의 조직과 기능: 정권 안정화 전략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7.
- 변학문, “만리마선구자대회, 과학기술과 속도전을 결합한 집단적 경쟁운동”, 『NK테크 브리핑』 NKTB A015호, 2017년 8월 23일.
- 장인숙, “1970년대 북한의 추격발전체제와 대중운동노선 재정립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정혜주, “‘고난의 행군’ 시기 영화예술에 나타난 군중노선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조준배, “생산과 복지의 갈림길에서: 스탈하노프 운동과 소련 노동조합, 1935-36”, 한국서양사학회, 『서양사론』 제100호, 2009.
- 주봉호, “북한의 군중노선”, 동의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統一論叢』 9권 1호, 1996.
- 차승주, “김정은 시대 북한 교육부문에서 대중운동”, 서울대 평화연구원, 『통일과평화』 8집 1호, 2016.
- 한국은행, “2017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결과(보도자료)”(2018.7.16).
- 홍재환, 『김정은 정권 5년의 북한 경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7.
- 『로동신문』, 2009년 1월 1일. 2014년 2월 26일. 2015년 11월 20일. 2016년 1월 19일. 2016년 2월 24일. 2016년 4월 4일. 2016년 5월 5일. 2016년 5월 8일. 2016년 8월 29일. 2016년 11월 7일. 2017년 1월 24일. 2017년 3월 7일. 2017년 8월 23일. 2017년 11월 7일.

【 Abstract 】

The Study on the change of the mass Line under
the regime of Jong-Un Kim

Moon, Jang-soon

This paper analyzes the change of the mass line under the regime of Jong Un Kim. The mass line has been one of the basic lines of the Korean Workers' Party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North Korea system.

However, the Korean Workers' Party has emphasized the mass line when the political or economic system was unstable. The actual center of the mass line was not the mass but the Party. The origin form of this tendency was shown at the Chollima rider Movement. This tendency was continued at The 2nd Chollima rider Movement, one of the representative mass movements of the system of Jong Il Kim. The principle of the mass line in the mass movement has been going on for 60 years. The Mass line of the regime of Jong Un Kim has been restricted by the mobilization of the mass. The outward appearance changes, but the pace for the achievement of the business and the group competition are still the key way of the mass movement.

Key Words : Mass line, Chollima Movement, Mallima Movement, Mallima rapid creation movement, a great strong nation

